

『신앙과 학문』, 제 13권 1호 (2008. 4), 169-187.

: 1)

()

가 가

가

: , , , , ,

2007 8 27 ; 2007 12 11 ; 2007 12 15
1) ‘ ’ 1910 .

I.	
II.	:
III.	
IV.	
VI.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이 글은 개신교 유입 초기 여성들의 개종을 발굴하여 분석하고, 그 종교적 의미를 밝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개신교는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했다. 개신교가 주관한 근대식 교육은 전통 사회에선 불가능했던 여성의 공적 영역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고, 그로 인해 삶의 실제적 차원에서 변화가 가능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집 안이 아닌 집 밖의 세계로 나와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개신교를 접하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여성 삶의 실제적 차원의 변화는 ‘개신교를 접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에 이런 의미는 지금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개신교가 여성들의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필연적 인과 논리로, 때로는 ‘개신교가 또 다른 여성 억압 장치로 작용했다’는 가부장제 비판 논리의 근거로 읽히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개신교가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여성의 개신교 개종으로 직결된다는 암묵적인 전제이다. 이 암묵적인 전제는 어쩌면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으며, 결국 초기 개신교 여성들의 다

양한 개종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의 여성들은 왜, 어떻게, 어떤 의미로 개신교로 개종을 선택했을까. 앞서 인용했던 초기 감리교 전도부인으로 활동했던 전삼덕의 고백(장병욱, 1979: 194)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주목하고자 한다.

실제로 초기 개신교 유입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의 개종은 이중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었다. 우선, 여성의 개종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성이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중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가부장적 전통 사회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속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신교를 선택하는 것은 양반, 평민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고, 개종한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들이 생겨났다(The Korea Mission Field, 1909: 145). 또한 개신교로의 개종과 그 사실의 공표는 의무와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행위로 비춰지면서 지역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여성 개종자들은 이러한 개종의 외부적, 내부적 대가를 스스로 묵묵히 감수해야 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여성의 개종 이야기는 때로는 안타까운 사연의 일종으로, 때로는 굳은 신념의 전형적인 예로 비춰지면서 다른 이들의 개종을 독려하거나 공동체의 단결을 이끄는 원재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신학월보, 1903. 3: 348-349).

초기 개신교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연이나 다른 이들을 독려하는 보조 자료가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과연 당시 여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개신교를 선택했고, 그 과정은 어떠한가,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는 바로 그 ‘여성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이 글은 한국 개신교 연구에서 여전히 침묵의 주체로 남아있는 초기 여성

들이 과연 개신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개종’ 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 ‘ ’ ‘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의 주제인 ‘개종’에 관해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흔히 개종으로 번역되는 “conversion”, “proselytism”, “改宗”의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종은 어떤 신념을 다른 신념으로 바꾸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종의 주제인 개종자는 이전의 신념보다 바꾼 다른 신념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라틴어 어원인 “proselytus”의 의미처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다. 제자리를 찾았다는 강한 확신은 개종 유형에서도 나타난다.

종교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에 따르면, 개종은 개종자의 의식적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의지적 유형(volitional type)과 개종자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즉각적 유형(surrender type)으로 나뉘는데(William James, 1902: 195-198), 이 중에서 이른바 개종의 전형으로 알려진 것은 즉각적 유형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종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²⁾

...나는 그 책을 집어 들고 펴서 내 첫눈에 들어 온 구절을 읽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

2)

Lewis R. Rambo(1999: 259-271)

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3-14)'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 구절을 읽은 그 순간에, 완전한 확실성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고 모든 불확실성의 어두움을 물리쳤다... (F. J. Sheed, 1992: 146)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우연히, 그러나 갑작스럽게 자신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로 그 순간 이전 과거의 자신을 모두 지워버린다. 강력한 종교 경험, 그것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개종 이야기에는 경험을 더욱 극적이게 하는 과거와 현재가 존재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처럼, 대다수의 개신교 개종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개신교의 개종은 과거와의 철저한 절연을 요구하고, 과거를 악마적인 것으로 재의미화(resignify)하면서, 개신교를 가장 효험 있는 새로운 힘으로 뿐만 아니라 빛과 삶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 이야기에는 “새로운 삶이 더 좋은 삶”(New Life is a better life)이라는 강한 확신이 담겨있다(Peter van der Veer, 1995: 220). 과거의 삶과 종교에 관한 부정이 강할수록 현재의 삶과 종교가 더 좋다는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사실 개신교로의 개종은 개신교의 독특한 인지적 차원을 습득하는 최초의, 가장 강렬한 사건이다. 개신교에서는 악하고 부정한 과거를 ‘죄’로 개념화하고, 현재의 공동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초월적 존재와의 결합을 위한 미래를 지향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개종은 이러한 개신교의 인지적 차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개종을 경험한 개종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각인하게 된다. 이러한 개종의 문법은 개종 이후의 삶에서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서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의 문법을 읽는다는 것은 개종 연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³⁾

3) 가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서의 개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차적인 경험을 구조화하고 번역한 개종 이야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경험 주체의 고백이든 혹은 다른 화자의 관찰이든 경험 순간을 이후 재구성한 이야기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개종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개종 경험의 차후 읽기라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자료들 속에서 개종은 일종의 공식화된 이야기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들 속에서 개종 주체의 종교 경험을 파악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여성들의 개종 이야기는 더욱 그러하다. 여성의 경험이 관찰자에 의해서 재구성된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사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초적인 목소리의 확실한 복원은 그만큼의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연구는 이런 의도의 일환으로서, 여성에게 개종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자 한다.

1. :

개신교의 확산은 같은 성 간의 유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성간의 교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선교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다. 일례로 여성 선교의 구호였던 ‘여성이 여성을 위하여(women for women)’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선교사들 또한 같은 성 간의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선교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그러한 원칙 하에 개신교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선교 방침에 기인한 것이지만, 당시의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했다.

전도는 여선교사에서 한국 여성으로, 먼저 믿은 여성들에서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여선교사들이 주로 도시에 머물면서 전도한 반면, 여선교사들이 교육한 전도부인들(Bible Woman)은 각 지방을 돌면서 활발한 전도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개신교인이 되었다. 전도부인은 전도문서와 복음서를 팔고 여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읽고 배우려는 욕구들을 자극했고 자신들의 개종 경험을 들려주었다(The Korea Mission Field, 1907: 42). 또한 전도부인은 개신교식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설교를 했으며(The Korea Mission Field, 1909: 102-103), 때론 삶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치병’을 행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The Korea Mission Field, 1907: 53) 전도자로서의 그들은, 개신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이른바 ‘미신 숭배’의 도구들을 파괴하면서 예배를 주도했다.(The Korea Mission Field, 1912: 207-208). 소위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도부인의 요구에 따라 과거 종교의 상징물을 파괴했는데, 이를 통해 개신교로의 개종이 공식화 되었다. 여성의 이러한 개종 과정은 개신교로의 편입이자, 새로운 인지적 차원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

당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개신교는 종교적 신념 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 체계이기도 했다. 개항기 서구 열강들의 등장과 더불어 격동하는 사회 속에서, 개신교는 새롭게 주목받던 미국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징적인 기호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 수용은 근대화와 문명화를 가능케 하는 기회로 여겨졌다. 남성 엘리트들은 국가적 유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민중들은 신분 상승의 동기로 개신교를 선택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성들의 개종 동기는

남성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개종에는 실존적이면서도 종교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민간신앙을 그들의 주요한 종교 활동 무대로 삼았다. 물론 유교 사회에서 민간신앙은 음사(淫事)로 규정되면서 열등하고 부정적인 종교로 분류되었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던 신앙과 실천이었다. 풍수신앙처럼 주로 남성들이 속한 민간 신앙도 있었고, 대표적인 민간신앙인 무속은 그 사제와 참여자가 여성이었다. 무속이 여성들의 독자적인 종교 영역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상적인 가치 추구나 궁극적인 철학과는 무관하지만, 기복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민간신앙은 여성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으며 이런 열망은 위기 상황이 등장할 때마다 적극적인 종교 실천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개신교로의 개종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여성들의 실존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민간신앙에 비해 개신교가 실존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여겨질 때, 개종의 강력한 요건이 생기게 된다.

여성의 경우, 개신교로의 개종은 질병 치유의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나는 빈 방에 홀로 앉았다가 우연히 선반을 쳐다보니 선반 위에는 무슨 종이 뭉치가 없혀 있었다. 내려서 펴보니 전도지와 성교에서 쓰는 성경 두 가지가 있음으로 그것을 한번 읽고 나니 ‘예수는 구주’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선반을 쳐다보니 물 담긴 무슨 병이 놓였는데 꺼내보니 약물처럼 보였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물을 예수 피로 알고 몸에 바르면 속히 낫겠다 하고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그 물을 따라 복숭아나무로 맞아 상한 몸에 발랐더니 몇 시간이 안돼 상처가 낫기를 시작해서 며칠이 지난 후에 딱지가 떨어지고 회복이 되었다. (W. A. Noble, 1927: 102).

위의 예는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던 상처가 회복됨을 계기로 개종을 한 경우이다. 이렇듯 질병의 치유가 개종 동기가 되는 경우는 당시 개신교 병원에서도 확인되는데, 많은 환자들은 병을 고쳐주면 개신교를 믿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이를 계기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다(The Korea Mission Field, 1909: 26-27). 일례로, 백내장 때문에 두 눈이 성치 못한 65세의 할머니는 치료를 해준다면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도 모두 예수를 믿겠다고 선교사들에게 선언했으며, 두 눈을 뜨게 되자 모두 개신교인이 되었다(The Korea Mission Field, 1910: 274-275).

여성들이 개신교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실존적 동기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 동기도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주요했다(The Korea Mission Field, 1907 : 166-167). 유교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던 여성들에게, 교회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며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고, 다양한 개신교계 교육 공간은 가정 안에만 갇혀있던 여성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불러내고 잠자고 있던 여성의 자아를 일깨우는 장소였다(이숙진, 2004: 55). 교육의 기회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일례로 1901년 4월에 있었던 “평양부인사경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약 50명의 여성들이 모여 14일 동안 공부에만 힘썼고, 다음 사경회에서 공부할 책 목록을 각기 적어서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으며, 수십 리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경회에 참석했다(신학월보, 1901, 4: 190).

1.

앞서도 밝혔듯이, 개종 이야기에서 과거와 현재는 ‘어두움’과 ‘빛’으로 대조된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듯, 과거는 현재에 의해 규정되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과거는 긍정적인 현재를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일 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개종 이야기 속에서 과거는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개종 과정을 통해서 개종자는 과거를 죄로 규정하는 개신교의 새로운 인지적 차원을 인식하게 되는데, 개신교 이전의 삶은 어둡고 의미 없는 죄로 규정된 시간이 된다. 죄는 범하면 안 되는 규범이자 과거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되면서, 개신교에서 부정하는 행동들이 용인되던 과거는 죄를 양산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 평가된다.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또한 과거는 철저히 부정되며, 죄와 연결되면서 재의 미화 된다. 과거는 죄이기 때문에 부정되며, 죄는 과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신교 유입 당시 교회에서 제시한 죄의 덕목들은 대개 남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신학적 논의가 필요한 원죄(original sin)보다 개신교 공동체의 규범을 나타내는 자범죄(actual sin)의 측면이 강조되었던 상황에서, 술, 담배, 아편, 노름, 축첩 등이 죄로 규정되었다. 고백해야 할 명백한 죄 덕목이 정해졌던 남성들과 달리, 여성에게 부과된 덕목은 명확하지 않았다.⁴⁾

4)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여선교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자가 자신의 죄를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다... (The Korea Mission Field, 1909: 31)

여선교사에게 죄를 고백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이 고백하는 죄 다시 말해서 과거가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손자의 죽음은 할머니의 결정적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를 수 많은 과오의 결과임을 말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죄는 불교의 업(業)과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민간 신앙에 속해 있던 과거를 부정했다. 신장 그림, 부적, 굿할 때 쓰던 물건들을 모아 불태우는 상징적인 행위로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의미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다(이덕주, 2000 : 79).

그러나 실제 삶에서 과거의 종교가 완전히 부정될 순 없었다. 현실에서 과거는 현재로 통합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심지어 개종 상황에서 개신교가 전통 종교의 힘을 과연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었다. 개종자들은 여전히 과거 종교의 힘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 상징물 파괴를 꺼려하기도 했다. 파괴한 상징물이 해를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도부인에게 파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일례로 강서 귀계에는 조상을 극진히 섬기고 금으로 만든 부처 등을 섬기던 부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불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불상이 더 이상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종을 결심했다(그리스도신문, 1898, 8: 9). 전통 종교의 영향력은 개종의 순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다(신학월보, 1902, 10: 414). 전통 종교의 예에서 보듯, 여성들에게 과거는 전적으로 부정되지만 그 과거는 개종 이후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에 각인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에 맞게 제대로 교정되어야 했고,

교정의 행위는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개종의 문법이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2. (purification)

과거와 절연하는 개종의 문법, 과거를 없애는 동시에 현실을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몸의 고백 즉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종의 순간, 과거에 몸과 마음을 담았던 전통 종교의 상징물을 없애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개종 이후에도 과거를 없애는 행위를 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강화읍내에 김씨 부인은…복섭이라 하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하루는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 하고 주를 믿기로 작정한 후 언문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하매 중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말하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만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오’ 하고 하루는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중 복섭이를 불러 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중 문서를 불사르고 그 중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나의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가지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시니 중 되었던 여자가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한 것이 충만하니 하나님께 만만감사할 일이다… (신학월보, 1903. 7: 203-204).

김씨 부인의 경우에 있어서 개종은 자신의 종교 경험을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개종했지만, 죄

를 깨우쳐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되는 개종 이후에는 그에 부합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성경 구절을 상고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김씨 부인에게 주인과 여종의 관계는 부정해야 할 과거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여종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교정되었다. 이렇듯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를 뉘우치는 고백과 그에 따른 행위는 적게는 도둑질했던 물건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김씨 부인의 경우처럼 새로운 관계 정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한편 새로운 관계 정립은 비단 과거의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개종의 정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일에도 열심을 보였고, 자신이 가진 돈을 연보해서 예배당 부지를 헌납하거나(예수교회보, 1913. 6: 6-7), 예배당 건축을 위해 먼 하천에서 직접 물을 퍼 나르고(예수교회보, 1913. 5: 5), 무보수로 지속적인 전도를 펼치며 연보를 행하는 열심을 보였다(예수교회보, 1913. 6: 6). 여성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교회 활동은 정화된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관계와 더불어 더 나아가 신과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끊임없는 실천이었다.

3.

엄밀히 말하자면 개신교 개종의 논리 자체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과거와 현재를 어둠에서 빛으로 묘사하고,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논리가 다르지 않다. 또한 개종의 과정에서도 당시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은 성의 전도를 통해서 개신교를 접했고, 고백과 실천의 과정을 거쳤다는 유사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개종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규범이 적용되던 유교 가부장제 사회 상황 때문에 생기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남녀를 철저히 구별하는 윤리가 존재했다. 남녀 또는 부부간의 이상적 조화와 상호존중을 위한 구별의 윤리는 우주의 이상적 원리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젠더 위계화를 생산했다. 구별의 윤리가 남성을 지배, 강건, 존귀 등으로 규정하는 반면, 여성을 복종, 유순, 비천 등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고 직분을 나누면서, 여성에게는 바깥출입을 제한하고, 재가를(再嫁) 금지하는 등의 정절 이데올로기로 확대된다.

흥미롭게도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규범, 즉 정절 유지의 규범은 여성 개종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상당수의 여성 개종자들은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재령읍의 송부인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그리스도신문, 1897. 9: 7).

…재령읍 사는 송부인은 비록 과부나 형세가 요부한 고로 다른 이보다 죄가 많은 가운데… (그리스도신문, 1897. 9: 7)

송부인은 과부였지만 평판은 좋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형세가 요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형세가 요부했다는 것은 당시 과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죄’는 법률적인 위반의 의미가 아니며, 당시 개신교의 죄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⁵⁾ 오히려 당시 사회 윤리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송부인은 이전의 자신이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못했음을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과부의 본분을 위해서 순결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철산에 사는 정반석이란 여성도 과부였으나 김용학에게 재가한 상태였는데, 개종 후 재가를 포기하고 혼자 살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그리스도신문, 1906. 8: 740) 독실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5) 가

여성 개종자들 또한 존재했는데, 장정심이란 여성은 독신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녀성을 지키며 순수한 신앙체험을 시로 표현했다(이덕주, 2007: 188). 이런 예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인 제재 사항을 죄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초기 개신교 여성 신자들의 개종 당시, 과부의 재가는 비록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개종의 상황에서도 정절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작동했다. 성적인 순결을 확보하려는 고백은 여성이 사회적인 제재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자 가부장적인 규범에 스스로 복종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로 설명될 수도 있다.⁶⁾ 그러나 당시 ‘축첩’ 문제와 비교해 보면 더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축첩을 한 남성들은 개종 이전의 성적인 부정을 회개해야 했고 많은 남성들이 이를 따랐다. 축첩이 개신교 내에서 대표적인 죄 덕목으로 거론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의 성적인 순결에 관한 공식적인 담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축첩에게는 남성의 성적 욕구에 희생된 무지하고 불쌍한 여성의 이미지가 덧씌워졌고, 교회는 축첩이었던 여성의 개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성 스스로의 성적인 순결 의지는 사회적 규범의 맹목적 승인이라기보다, 여성의 능동적인 주체적 실천으로 봐야할 것이다. 여성이 과거를 절연하고 현재를 의미화 하는 개종의 논리를 스스로 체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개신교 유입 당시 자료들 속에 나타난 여성 개종 이야기를 분석

6)
67 - 68)

(1984:

하고 그 의미를 추적해보았다. 개종은 종교를 선택하는 능동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문법을 배우고 각인하는 실천이다. 여성들은 스스로가 개종 경험을 통해서 개신교를 선택하고, 개신교의 인지적 차원을 익히고, 실천했다. 그들에게 전통 종교를 믿던 과거는 현재와 분리된 시간이었고 부정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개종의 순간뿐만 아니라 개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을 실천했고, 그 실천은 다시금 개종을 기억하는 장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개종은 일회적인, 상징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개신교를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글이 여성에 주목한 이유는 그동안 여성이 억압과 차별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묻혀진 여성의 목소리를 묻혀진 주제 속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묻혀진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역사가 모든 종류의 자료를 저장해 두고 있는 창고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그 가능성과 의미는 여전히 크다 (Susanne Heine, 1986: 237). 또한 종교가 그 종교를 수용하고, 해석하며, 의미화 하는 수용 주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 증식을 하는 유기체임을 감안할 때, 초기 여성의 개종은 단지 여성의 국한된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시론적인 연구의 의미만을 가지며, 지속적인 추후 연구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그리스도신문』,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한국감리교사학회 편 (1988), 『신학월보』, 서울: 한국감리교사학회.
 예수교회보사 (1914), 『예수교회보』, 서울: 예수교회보사.
 양현혜 (2006), "근대 한국 사회의 변혁과 기독교 여성," 『민족과 여성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 이덕주 (1990), 『한국교회처음여성들』, 서울: 기독교문사.
- ____ (2007), 『한국교회처음여성들: 개회기 여성 리더들의 혈전의 역사』, 서울: 흥성사.
- 이숙진 (2005), "한국 개신교 주류담론이 교회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나 (2006), "18세기 이후 한국에서의 그리스도교 원죄 이해: 전교초기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42, 서울: 한국종교학회.
- ____ (2006), "초기 한국 개신교의 죄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병욱 (1979), 『한국감리교여성사』, 서울: 성광문화사.
- Bercovitch, Eytan, (2001), "The Altar of Sin: Social Multiplicity and Christian Conversion among a New Guinea People," in Susan L. Mizruchi eds., *Religion and Cultural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stelli, Elizabeth A. (2001), *Women, Gender, Religion: A Reader*, with the assistance of Rosamond C. Rodman, New York: Palgrave.
- Connor, Kimberly Rae. (1994), *Conversions and Visions in the Writings of African-American Women*,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Daly, Mary. (1984), *Pure Lust: Elemental Feminist Philosophy*, Boston: Beacon Press.
-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1905-),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 Gillespie, V. Bailey (1991), *The Dynamics of Religious Conversion: Identity and Transformation*, Br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 Heine, Susanne (1986), *Frauen der frühen Christenheit: Zur historischen Kritik einer feministischen Theologie*, 정미현 옮김 (1998), 『초기 기독교 세계의 여성들: 여성 신학에 대한 역사적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 학교 출판부.
- James, William (1902),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Modern Library.
- Juschka, Darlene M. ed., (2001), *Femi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A Reader*, London: Continuum.
- King, Ursula ed., (1995), *Religion and Gender*,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 King, Ursula & Tina Beattie, eds., (2004), *Gender, Religion, and Diversity*:

-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w York: Continuum,
- Lerner, Gerda (1986), *The Creation of Patriarc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Creation of Feminist Consciousness: From the Middle Ages to Eighteen-Seven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David, (1990),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Noble, W. A, ed. (1927), *Victorious Liv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 The First Books of Biographies and Autographies of Early Christians in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 Seoul: The Chrstians Literature Society.
- Rambo, Lewis R, (1993), "Theories of Conversi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Religious Change," *Social Compass*, 46(3).
- _____ (1987), "Conversion" in Mircea Eliade ed., *Encyclopedia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Ruether, Rosemary Radford ed. (2002), *Gender, Ethnicity, and Religion: Views from the Other S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 Sharma, Arvind ed. (1987), *Women in World Rel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 ed. (1994), *Religion and Wome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 ed. (2002), *Methodology in Religious Studies: The Interface with Women's Stud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harma, Arvind & Katherine K. Young. eds. (1999), *Feminism and World Rel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 Augustine. (1992), *The Confessions of Saints Augustine*, F. J. Sheed tr.,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 Veer, Peter van Deer ed. (1984), *Conversion, Competition and Conflict: Essays on the Role of Religion*, Berlin: Free University Press.
- _____ ed. (1994), *Conversion to Modernitie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New York: Routledge.

Abstract

From Sin to Salvation

: Women Conversions in early modern Korean Protestantism

You Na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religious meanings of Women Conversions in early modern Korean Protestantism. Though most of believers are women in Christianity, women conversion haven't been seriously studied so far. In early modern times, Women made their dreams come true in Protestantism. Then, What made their attentions to Protestantism? What were their experiences? What were the meaning of conversion to women? To get these answers, It focused on the various stories of Women Conversion through analysing their conversion motifs, networks, and the characters of their own experiences.

Key Words: Women, Conversion, Experience, Story, Sin, Appropriation

